

□ 기획인터뷰 —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학생통일운동, 역사의 필연적 움직임

잘못된 기득권층 부패만 누적

사회변혁층 학생 통일운동 이끌어야

언어와 문화가 같고 조상이 같은 두 개의 민족이 외세로 인해 분리되어 위도 38도선에 철의 장막을 두르고 지낸 지 이제 반세기가 되어간다.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극단적인 두 개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 묻어두고 살육과 모함의 시대를 보내왔다. 지구에서 하나 남은 분단국가의 오명을 언제까지 간직한 채 살아야 하겠는가. 세계는 자꾸만 좁아지고 더 이상 혼자서 살아갈 수 없게 된 이 시대에 민족의 화합은 다시금 멀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여기 이 땅에서 통일운동에 평생을 받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진정한 민족주의자로 칭송받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백기완 선생이다. 우리신문은 창간 기념을 맞이하여 백선생과 민족의 통일, 학생운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편집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된 적은 없었다’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정부 고위관리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했던 말이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였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전 세계가 북의 동태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중 근래에 들어 최악의 기근현상을 맞이하고 있다는 북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또한 북한의 사상적 기동인 주체사상을 집대성했다는 황장엽씨가 망명하였고 조만간 열린다는 4자 회담은 아직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고 있다. 21세기의 남북관계는 이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깊은 안개에 둘러싸인 것이다.

이제 여기서 통일운동가인 백기완 선생과 통일에 대해, 통일운동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한다.

‘한반도가 분단만 되지 않아다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

“분단으로부터 시작된 이승만정권이 이 땅에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백선생은 외래자본주의가 분단으로 인해 이 땅에 들어왔으며 과거 숙청되지 않았던 일제의 잔재가 분단으로 인해 고착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득권 층은 지속적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체되지 않고 통일운동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

한다. 백선생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기득권층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던 민중이 현실 모순의 해결지로 나서려는 것은 역사의 필연적 움직임이다”라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쟁취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한다. 첫째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로써 사상의 자유 진정한 민주주의의 추구를 위해 가장먼저 해결 해야 할 것이라고. 두번째로는 노동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현재의 노동법을 지적하고

한다. 이러한 맥락과 마찬가지로 현 대북 식량지원의 양상에 도 통일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한다. 4자회담 성사등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워 정부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을 금하고 있고, 그나마 민간차원에서 나타나는 식량지원 움직임마저 정부는 암묵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중이다. 근대이후 최악의 기근현상이 바로 북한의 우리민족에게 일고있는데 현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밝고

희생당했다”라며 그 때 사건을 말한다. 38선이 국토를 이분하고 나서 김구선생은 국제연합 한국의원단에 ‘미국과 소련을 배제하고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라는 합의서를 발표했다가 기득권층에 의해 소련의 앞잡이, 좌경세력으로 매도당했다. 그 때 이후로 계속되는 메카시즘은 우리민족의 대륙적 성향을 앗아갔으며, 민족의 이상을 강탈해갔다고 한다. 통일운동은 이러한 기득권층의 실망적 태도에 굴하지 말고 지속되어야 한다. 범국민적으로 통일의 열정을 유지해야만이 혼란스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학생운동은 전위의 입장에서 통일운동을 이끌어야 한다. 젊고 순수하다는 이름으로 사회변혁층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해 연대사태이후 사회의 많은 세력은 학생운동을 동졌으며 최근 나타나는 잇단 한총련탈퇴의 움직임등은 민중운동으로서 학생운동이 설자리를 좁히고 있다. 백선생은 이러한 학생운동에 대해 고강도 조연술을 한다. “요즘 학생들은 이기적인 측면이 적지않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변혁에 대해 ‘해도 안된다’라는 주관적인 절망감에 빠져있다”라며 현 대학생들을 비판한다. 하지만 이 땅의 학생운동은 인간, 사회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해도 굶주리고 있는 원수를 죽일 순 없다”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득권 세력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거법, 정당관련법들을 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폐기 또는 수정되고 노동자 스스로 모든 문제해결의 알기(주체)임을 자각할 때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가능하리라 백선생은 내다본다.

기득권층의 부패와 가지치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현 문민정부의 통일의지를 점검해볼 만 하다. 92년 출범이후 5년 가까이 지나 온 지금 통일은 더욱 가까워졌는지 아닌 오히려 더 멀어졌는지에 대해 백선생은 “이승만정권때 보

올라선 입장에서 통일을 논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해도 굶주리고 있는 원수를 죽일 순 없다”며 백선생은 민간, 정부, 합심하여 식량을 당장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근본적인 북의 기근타파를 위해 몇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완화되어야 하고 두번째는 북한도 교역 국가를 세계 곳곳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통일일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는 여기 또하나 있다. 메카시즘이 바로 그것이다.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학생운동은 선두자 입장에서 통일운동을 이끌어야 한다”

망명했던 황장엽씨는 근래 계속되는 극우적 발언으로 남한 내 보수세력의 태동을 부채질하고 남북한 관계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 12월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황장엽 리스트를 앞세운 메카시즘이 나타날 징후가 농후하다.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던 백선생은 메카시즘에 의해

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다며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알기 즉, 주체가 되기를 당부한다.

현재 학생운동이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백선생은 많은 것을 지적하고 조언한다. 우선 지금까지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민족사에 기여한 바가 많다는 것은 인

정하지만 모자란 부분이 존재함을 꼬집는다. 첫번째로 통일의 앞자 즉, 실체를 제시하지 못하는 추상적 통일운동에 머무르고 있는 학생운동을 지적했다. 통일은 민족사, 세계사의 진보임을 깨닫고 지속적인 토의를 거쳐 올바른 실체를 찾아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 통일이란 미명아래 분단현실을 사실상 고착화 시키려는 움직임을 이 있다고 한다. 이 땅의 독점외래자본이 수탈에속적으로 지배하는 한 통일이 이루어졌다 쳐도 이것은 진정한 통일이 아님을 말한다. 옳지 못한 모순의 현상을 타파하는 것까지 포함한 통일운동을 펼쳐 나아갈 것을 당부한다. 셋째로 지속적이지 못한 통일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학생운동에서 통일운동은 7, 8월을 기점으로 높아지다가 그 시점을 지나면 수그러드는 모습들과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통일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백선생에게 실망만 안겨준다고.

부제가 도입되어 기존의 과거가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인화, 정치무관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못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금 새로이 통일을 맞이하려는 자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

해주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도 언제나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고인다는 백선생은 독재정권의 억압 속에 힘들게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언젠간 역사의 필연으로 다가올 한민족의

언젠간 역사의 필연으로 다가올 한민족 통일

했다. “통일운동은 학생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단체제에서 피해 받는 민중의 해방투쟁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백선생은 통일운동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통일은 외래독점자본의 예측과 제국주의적 지배체결을 위한 세계사적 진보의 움직임을 깊이 깨닫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통일의 실체와 학생들의 자세를 제시해주었다.

백선생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 출판한 ‘아! 나에게도’라는 시집을 직접 손으로 북에게신 어머니와 누님에게 전

통일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며 비장한 표정을 짓는다. ‘시집하나 보내겠다는 이 간절하고 조그마한 소원, 남도·북도 기어이 외면할 건가? 정치권의 통일에 대한 자각,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통일운동이 지속되어야만 백선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일시 : 1997년 5월 8일
장소 : 통일문제연구소
대담 : 정리 : 김동욱 기자
사진 : 김동혁 기자

집안의 안정 기다리기엔

통일은 너무 급한 선결과제

이러한 시기 우리 사회도 평안하지만은 않다. 한번쯤 이름을 들었을 법한 정치인, 경제인들이 줄줄이 대검청사 현관에 불려와 포토라인 앞에서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찍으려면 찍어봐라’는 식으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의 차남이 황태자인양 나라안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청렴결백을 내세우던 문민정부도 이제 그 뒤로 대선자금이란 배반의 꼬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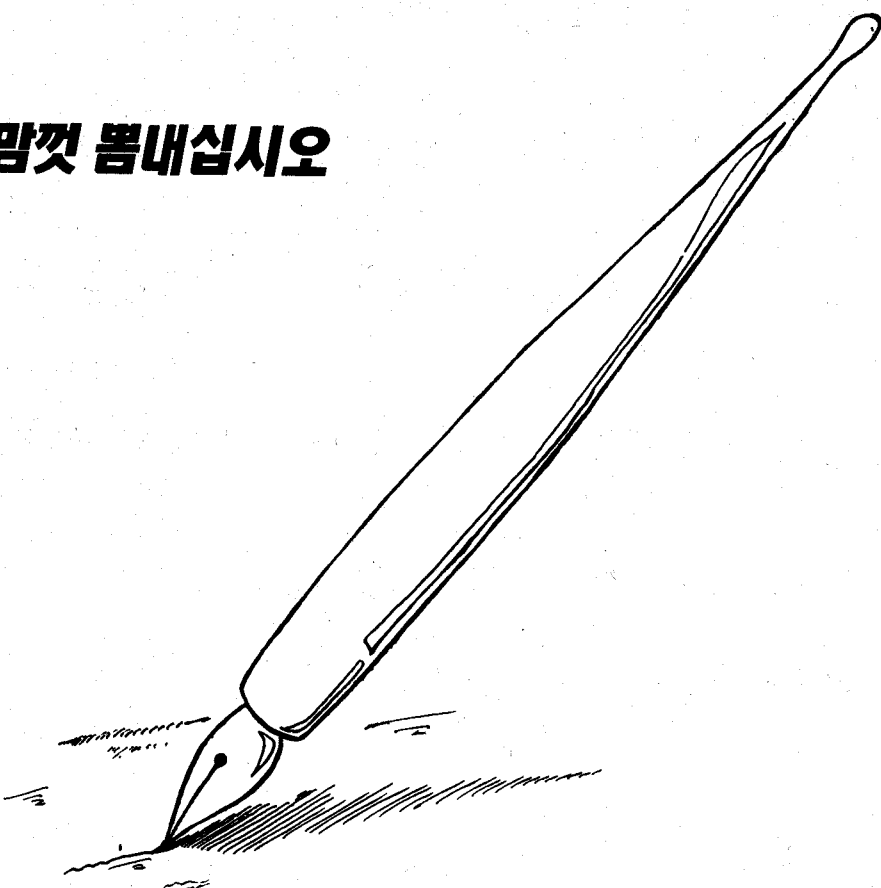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얼핏 현실의 면인 듯 싶기도 하다. 하지만 참되게 현실의 혼란을 정리하고 해결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너무 급한 선결과제이다.

하고 있어 결국 민중세력에 게 억압과 피해를 안겨주는 것이 분단의 폐해라 한다.

기득권 층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백선생은 말한다. 한보사태, 대선자금 문제 등 현재의 총체적 부패부정이 그 증거이고 이 모든 책임을 김영삼 대통령이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백선생은 단언한다.

분단으로 인해 잘못된 기득권층이 생겨난 것에 대해 노동계는 그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일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기타 노동운동조직은 대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

지금 당신의 글을 맘껏 뽐내십시오



제15회 English Essay & Book Review Contest

경희대학교 영자신문 The University Life에서는 창간 39주년을 맞아 제15회 전국 English Essay & Book Review Contest를 개최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부문 : 1. Essay 2. Book Review
- 주 제 : 자유선택
- 대 상 : 전국대학생(전문대생 포함)
- 원고분량 : Typing된 16절지(25행) 3~5매(필히 컴퓨터 디스켓 첨부)
- 응모마감 : 1997년 5월 16일 18시
- 제 출 처 : The University Life편집실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학생회관 3층
· 경기도 기흥읍 서천리 1 경희대학교 학생회관 1층
· PC통신 : 천리안 Unilife, 나우누리 KHU press
- 발 표 : 본지 1997년 6월호
- 시상내용 : 1등(1명) - 장학금 100만원 및 상패
2등(2명) - 장학금 30만원 및 상패
- 문 의 : 서울 캠퍼스 편집실 (02)961-0097
수원 캠퍼스 편집실 (0331)280-2139